

순간의 소리를 영원으로 담는

숨은 예술

찾기 보이지 않

는 곳에서 예술과 예

술가들을 만들어가

는 숨은 예술, 숨은

예술가들과의 만남

레코딩 엔지니어

황병준

예술을 담는 ‘그릇’을 빚는 자는 기술자일까, 예술가일까.

황병준의 이름은 일반인에게 생소하지만, 다른 레코딩 엔지니어들(더불어 뮤지션들) 사이에서 그는 슈퍼스타나 다름없다. 올해 제50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그는 레코딩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부문 최우수 녹음 기술상’을 거머쥐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였다.

그런데 레코딩 엔지니어가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음악의 아카데미적인 그래미에 ‘녹음 기술’ 부문까지 마련되어 있는 걸까. 무심한 청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스튜디오에서 뮤지션이 연주할

때 녹음 버튼만 누르면 음반이 되는 것 아닌가?

레코딩 엔지니어는 순간의 사운드를 영원으로 담는다. 찰나의 감동으로 사라질 운명인 사운드를, 음반이라는 그릇에 영원히 붙들어놓는다. 길이 남는 것이니만큼, ‘최고의 사운드’를 포착해야 함은 물론이다. 레코딩 엔지니어는 뮤지션이 자신의 정수를 끌어내도록 북돋아주고, 조언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던진다. 그리고 이를 고도의 녹음 기술로 실제에 근접하게 구현해낸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뮤지션의 목소리뿐 아니라 레코딩 엔지니어의 손길까지 함께 듣고 있는 셈이다. 비틀즈의 레코딩 엔지니어였던 조지 마틴이 종종 비틀즈의 ‘다섯번째 멤버





버'로 꼽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황병준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 '환자'였다. 고1 때 음악으로 영혼이 움직인 경험을 한 뒤, 그는 '미친 듯이' 음악에 빠져들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다닐 때도 정작 그가 몰두하고 심취한 것은, 학교 음악감상실 DJ와 밴드 활동이었다. 정해진 수순이었을까. 전기공학박사 과정을 밟으려던 미국 유학길에서 그는 돌연 레코딩 엔지니어로 진로를 틀었다. 다소 뒤처진 출발이었지만, 시동이 걸리자마자 그는 단숨에 앞으로 나아갔다. 그간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열정을 해둔 덕이었다. 뉴욕 인스티튜트 오브 오디오 리서치와 버클리 대학에서 뮤직 프로덕션 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 엔지니어인 사운드미러 대표 존 뉴튼을 사사한 뒤, 2000년 귀국하여 사운드미러 코리아를 세웠다. 특히 그는 스튜디오가 아닌,

성당이나 극장과 같은 넓은 현장에서 녹음하는 필드 레코딩(field recording)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장감과 공간감을 중시하는 황병준의 소리 철학을 대변한다. 그의 소리 철학과 손길이 녹아들어간 대표작으로는 피아니스트 김대진, 소프라노 신영옥, 서울시향 등의 음반이 있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황병준은 그래미상을 받은 <수난주간> 음반을 들려주었다. 합창단의 웅장한 아카펠라는, 그것도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이 마련된 사운드미러 스튜디오에서 듣는 그 음악은 인터뷰어의 둔감한 귀조차도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제야 그가 말하는 '좋은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귀에 잡힐 것 같았다. 필드 레코딩 작업 현장으로 그를 다시 찾았을 때, 텅 빈 소극장에는 소프라노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기타 반주에 맞춰 일렁이고 있었다. 뮤지션과 황병준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고의 사운드로 가다듬어가는 그 장면은 마치 오묘한 화학반응과도 같았다. 이를 숨죽이며 엿보는 동안, 신기하게도 준비해간 질문들 중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말았다.

문화예술 레코딩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음악애호가들에게조차도 레코딩 엔지니어의 세계는 낯섭니다.

황병준 흔히 생각하기로는, 스튜디오에서 뮤지션들이 한꺼번에 연주하고 컨트롤 룸(조정실)에서 엔지니어가 녹음 버튼 틱 누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웃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레코딩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레코딩, 믹싱과 에디팅, 마스터링. 이 세 단계를 알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첫번째 레코딩 단계는, 말 그대로 뮤지션의 연주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이크를 셋업하는 일을 하지요.

문화예술 녹음할 때 마이크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위치에, 몇 개의 마이크를 두느냐에 따라 마치 다른 사운드처럼 들린다고요.

황병준 네, 그렇습니다. 또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다같이 녹음하는 게 아니고, 멀티 트랙을 씁니다. 드럼 따로, 베이스 기타 따로, 이렇게 각각 녹음하는 거죠. 드럼, 베이스 같은 리듬 섹션을 먼저 녹음하고, 그 위에 악기를 하나씩 입혀나가죠. 그렇게 완성된 반주 위에 가수들이 마지막으로 녹음합니다. 음반마다 트랙 수가 다 다른데, 영화 사운드 같이 복잡한 경우엔 수백 트랙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수백 트랙이라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가령 3분짜리 곡이라면, 녹음하는 데

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황병준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피아노 솔로인 경우엔, 한 번 쳤는데 완벽하다 싶으면 3분으로 끝이예요. 하지만 대중음악처럼 악기 수도 많고 복잡한 경우,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심지어 1곡만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의 드럼 소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드럼 소리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테이블, 바닥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섞어서 마음에 드는 킥 드럼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수십 개의 소리를 섞어서 스네어 드럼 소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상상 속의 소리를 만들어 가다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문화예술 소리의 조합이 거의 무한대겠네요. 일종의 소리 실험이군요.

황병준 그렇죠. 믹싱과 에디팅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음악을 스테레오로 듣잖아요. 이어폰을 끼든지 스피커로 듣든지. 그러니까 수십, 수백의 트랙을 두 개로 짬뽕시키는 거예요. 요리할 때 많은 재료를 쓰지만 결국은 한 입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게 믹싱입니다.

또한 녹음 중 좋은 것만 골라서 편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이 소절은 첫번째 테이크가 좋다, 다음 소절은 다섯번째 테이크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잘된 것만 골라서 붙여나갑니다. 조립하는 거죠.

문화예술 수백 번 연주해서 잘된 부분만 조각조각 따서 조합하면, 뮤지션의 진짜 숨씨보다 과대포장되지는 않나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뮤지션들이 실황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황병준 맞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뮤지션의 아이디어를 훨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의도한 대로, 상상한 대로, 전달하고 싶은 대로. 반면, 편집을 받고 연습을 소홀하게 하거나, 실황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공존해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진짜 뛰어난 뮤지션들은 라이브 상태로도 굉장히 좋은 음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 뮤지션들한테는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수백 번 연주해서 나의 고갱이만, 핵심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음악성의 저하로만 연결되지는 않아요. 음악뿐 아니라, 모든 도구에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지요. 좋은 의도로 쓸 수도 있지만, 인생을 망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도구 자체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피치(음높이)를 바꿔달라든가, 템포를 바꿔달라든가 하는 요구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문화예술 그게 무슨 뜻이죠?

황병준 연주할 때 예를 들어 1/10 음 정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곡을 연주한다고 해도 테이크마다 템포가 조금씩 느려진다거나 빨라진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뮤지션이 템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저는 최소한 한 번은 직접 연주하라고 해요. 편집은 해주겠다고. 그건 제 양심과도 관계있는 문제죠. 게다가 제 귀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바꾼 것도 다 들리거든요.

문화예술 에디팅 작업에 임할 때 선생님이 갖고 있

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단계인 마스터링은 어떤 건가요?

황병준 마스터링은 음반에 실릴 여러 곡을 조화롭게 하는 작업이에요. 곡마다 소리 크기도 다 다르고, 음색이나 느낌도 다르거든요.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공장으로 보내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최종 마스터를 만들어주는 것을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 이 세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황병준 사실 세 단계 모두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음반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덕션에서 가장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레코딩입니다. 왜냐하면 레코딩할 때 비용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스튜디오를 빌리거나, 세션맨 데려오는 데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 뮤지션 특유의 소리를 찾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볼 여유가 없어요. 대충 빨리빨리 해버리고, 믹싱, 에디팅할 때 고쳐달라고 요구해요. 자꾸 나중에 미루는 거죠. 저는 레코딩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소리를 잘 잡으면 뒤로 갈수록 할 일이 적어지거든요. 레코딩을 망치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스튜디오 녹음은 거의 안 하고요. 대부분 필드 레코딩이라고 해서, 교회나 콘서트홀 같은 현장에 나가서 녹음합니다.

문화예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필드 레코딩의 강점을 설명해주신다면요.

황병준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좁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면 음악에 넓은 공간감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해요. 이퀄라이저를 쓴다든가, 인공적인 잔향을 만들어주는 리버브라는 장치들을 써서 인위적으로 공간감을 만들어 줘요. 하지만 ‘원판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화장을 하고, 나중에 포토샵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원판을 벗어날 수 없듯이, 소리도 마찬가지로요. 성당이나 교회 같은 넓은 홀에서만 잡을 수 있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고생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장비들을 짊어지고 현장에 나가서 녹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번에 그래미상 받은 음반도 교회에서 녹음한 거예요. 이따 들러드릴 테니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문화예술 한국에서 필드 레코딩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황병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죠. 스튜디오 녹음이 더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물론 전자음악이나, 드럼 같이 센 음악이 많은 경우엔 울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스튜디오에서 녹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도 많거든요. 소위 어쿠스틱 음악, 즉 전자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악기 자체의 소리가 중요한 음악들은 필드 레코딩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음악에 따라 어떤 방법이 좋을지 미리 구별하고, 작전을 짜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참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예술 그러면 외국에서는 필드 레코딩이 보편화되어 있나요?

황병준 아, 그럼요. 클래식 같은 어쿠스틱 음악은 당연히 홀에서 녹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예술 주로 어떤 곳에서 필드 레코딩을 진행하십니까?

황병준 공간을 정말 잘 선택해야 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 음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지 파악해야 해요. 공간이 소리를 완전히 바꿔주거든요.

문화예술 공간과 소리의 궁합이 잘 맞아야 하는 거군요.

황병준 그렇죠. 뮤지션이랑, 악기랑, 연주에 따라 적합한 홀이 달라져요. 음향이 좋고, 잔향이 좋은 홀을 선택해야 돼요. 높은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낮은 소리가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죠. 소리가 풍부하고 풍성하게, 시끄럽지 않게,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디테일은 살아 있는 홀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조용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도 소용없겠죠. 차 소리나, 동물 울음소리 때문에 녹음에 방해가 많이 받습니다.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야 합니다.

문화예술 레코딩 엔지니어가 고려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진정으로 원하는 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나요?

황병준 촉박할 때가 많죠. 특히 영화 사운드트랙의 경우, 투자자가 돈을 회수해야 하니까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뭐 36시간 스트레이트로 할 때도 있고, 그럴 땐 너무 힘들죠.

문화예술 일일이 소리를 실험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시간 단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황병준 정말 그렇습니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빨리빨리가 안 되지요. 2배속, 3배속으



로 들으면서 작업할 순 없잖아요. (웃음) 경험이 쌓이면서 감이 조금씩 늘어가기 하지만요.

문화예술 그 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해야 생기나요?

황병준 글썄요. 개인 편차가 있겠죠. 저는 레코딩 엔지니어 되겠다고 마음먹기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워낙 음악을 많이 접했어요. 음반도 엄청 모았고, 오디오 마니아이기도 했고요.

문화예술 음악은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황병준 음악을 연주하고 듣는 건 어릴 때부터 계속 했어요. 아주 어릴 때 이모가 음악을 많이 들어서 알게 모르게 다 쌓여 있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 것 같네요.

문화예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황병준 고1 때 음악 선생님이 좀 별난 사람이었어요. 베토벤 교향곡 같은 유명한 클래식을 몇 번, 몇 악장에 몇 주제냐, 이런 것까지 다 외우게 했어요. 애들은 막 경기 일으켰죠. 시험 대비용 불법복제 테이프가 돌았어요. 다들 그거로 대충 하는데, 전 그러기 싫더라고요. 전체 교향곡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반복해서 들었어요. 한 100번쯤 들었을까

요? 하루는 베토벤 5번 3악장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면서 베토벤이 왜 위대한 작곡가인지 딱 알겠는 거예요. 피치카토 나오면서 확 터지잖아요. 말하자면 베토벤의 영혼이랑 제 영혼이 클릭이 된 거죠. 그때 이후로 미친 듯이 음악을 들었어요. 밤새 음악 들으며 울다 웃다 했죠.

문화예술 고1 때 음악으로 인해 영혼이 움직인 경험을 하신 셈이네요.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선택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황병준 당시에는 진지하게 음악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줄 알았죠.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땐 원체 분위기가 완전 입시 위주였거든요. 책도 교과서만 봐야 했고, 음악도 대놓고는 못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살살 틀어놓아야, 부모님이 공부하나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웃음) 밥 사먹으라고 용돈 주시면, 만날 음반 가게로 달려가고, 음반도 너무 많으면 혼나니까 몰래 숨겨놓고 그랬죠.

문화예술 학부, 석사 전공으로 전기공학을 선택하셨는데, 그건 부모님이 원하신 것이었나요?

황병준 아뇨.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집 안에서는 법대나 의대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싫더라고요. 김명호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초대 NTO(National Technology Officer)인데요. 전 세계 MS에서 NTO는 10여명 밖에 안 될 정도로, 빌 게이츠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대구에 나와서 같이 지내고, 친했죠. 제가 그 형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형처럼 당연히 공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화예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동네 형 따라 우연히 공대에 간 셈이네요.

황병준 그렇죠. 대학 가서도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존재는 음악이었어요. 학교 음악감상실 DJ로 들어갔는데, 거기 모인 학생들 전부 다 저 같은 ‘환자’들이 거예요. (웃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DJ 타임이 있어서, 신청곡 받아서 음악을 틀었어요. LP도 2천 장 넘게 있고,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있었으니, 완전히 신났죠 뭐. DJ 타임 끝나면 서로 듣고 싶은 음반 틀려고 막 싸우고. LP 누가 빨리 찾아 내기하거나, 무슨 곡인지 맞는게 게임하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무슨 곡인지만 맞는게 아니라, 누가 연주했고, 몇 년도 녹음이고 그런 것까지. (웃음) 오디오에 대한 갈증이 있었으니까, 방학 때도 내내 거기서 음악 들었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수준 있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문화예술 음반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요.

황병준 그럼요. 심지어 그때는 동구 쪽 연주자나 작곡가 음악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쇼스타코비치도 못 듣게 했는데, 그런 거 몰래 틀고 그랬죠.

문화예술 음악감상실 학생들 전공은 대체로 어떤 거였나요?

황병준 음대생도 간혹 있긴 했지만, 보통은 저처럼 타전공생이었죠. 지금도 음악감상실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미상 타고 받은 축하들 중에 제일 감동이었던 것도 음악감상실 친

구가 커뮤니티에 쓴 글이었어요. “우리가 젊을 때 음악에 그렇게나 심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번에 병준이가 보여줘서 너무 너무 기쁘다.” 그 글 보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문화예술 그 ‘환자’들 중엔 선생님처럼 음악 쪽으로 진로를 튼 사람들은 없나요?

황병준 음, 거의 없네요. 방송국 PD나 이런 쪽으로 간 친구는 있는데 아예 음악 쪽으로 나간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선생님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군요.

황병준 그런 셈이죠. 저희 과에서도 제가 제일 튀었어요. 밴드도 열심히 했고.

문화예술 밴드 이름이 기독교노래운동 그룹이지요. 특별히 기독교와 연결 지은 이유가 있나요?

황병준 맨 처음 명명하기를 기독교노래운동이라고 했고, ‘뜨인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성경에 나온 말인데,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뜻이에요.

80년대 말에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기독교 정신이 결코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약자, 민주주의, 통일운동 등을 다 아우를 수 있는데, 당시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랄까 그런 걸 노래로 일깨우고 싶었죠.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과 울분,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활동이었나요?

황병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 학교

축제 때 학내 노래패 경연대회에 나가서 일등상 받고 그랬죠. 집단 창작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음악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공부부터 했어요.

문화예술 공부요?

황병준 우리만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노래는 정신이 담겨야 되잖아요. 사랑 노래도 가슴 아픈 사랑인지, 즐거운 사랑인지에 따라 정서가 전혀 다른 것처럼. 책을 많이 읽었죠. 기독교 서적뿐 아니라, 역사, 음악, 문화 전반에 대한 공부. 그래서 후배들이 힘들어했죠. (웃음) 제가 제일 굳기 잡는 선배였거든요.

문화예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정말요?

황병준 애들이 무서워했죠. 책 안 읽어오면 막 혼내고. (웃음) 정말 청춘과 젊음을 다 바쳐서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시 대학생들 대리출석 정말 많이 했거든요. 대리출석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면, 인생의 한 부분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나 진지했어요. (웃음)

문화예술 공연도 많이 하셨나요?

황병준 거의 수백 회를 했죠. 공연하면서, '정말 이거 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시엔 뜨인들이 제 삶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만큼 한편으론 너무 힘들었죠. 공부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학교 잔디밭에서 영영 언 적도 있어요.

문화예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면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황병준 후배들이 있는데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엔 이렇게 생각했죠. 이러다가 학교 졸업 못 하면 못 하는 거지 뭐.

문화예술 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선생님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황병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끝이끝대로이고, 음악 만들 때도 그런 게 좀 나오죠.

문화예술 우연인지, 필연인지, 선생님 이력의 많은 부분이 이미 레코딩 엔지니어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준 맞아요. 뜨인돌, 음악감상실 DJ, 교회 찬양팀 활동... 그 중에서도 뜨인돌이 정말 크고요. 되돌아보면 취미로 했던 일들이 다 제 삶의 터전이 되고,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참 행복한 거죠.

문화예술 음악 관련한 취미 활동은 물론이고, 전공도요. 동네 형 따라 전기공학과를 선택했지만, 사실 레코딩 엔지니어에게 필수적인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전기, 전자에 대한 이해 아닌가요?

황병준 그렇죠. 처음에 버클리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전공을 완전히 싹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기공학 모르면 레코딩 엔지니어를 못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수학, 전기공학, 물리 쪽은 이미 한국에서 석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왔으니, 진도가 훨씬 빨랐죠. 조교로 다른 학생들 가르칠 정도였어요.

문화예술 애초에 미국 유학은 전기공학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갑자기 그렇게 큰 선회를 감행한 계기가 있나요?

황병준 그동안 내가 못 보고 살았던 것들이 너



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미국에는 어릴 때부터 소박하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택해서 집중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가. 전기공학도 뭐 그냥 열심히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신나서 하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신나게, 열정적으로,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제일 잘 하는 것이, 음악 듣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레코딩 엔지니어가 저한테 딱 맞겠더라고요. 녹음도 사실 대학 때 밴드하면서부터 많이 해봤고요.

문화예술 어떤 식으로요?

황병준 밴드 공연할 때, 음향 조절하는 것도 직접 했고. 또 저희 연주를 녹음기에 담아보는 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직접 녹음한 소리는 상업 음반에 비하면 너무 조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업 음반처럼 녹음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게 많았죠. 밴드 멤버들끼리 최신 장비도 사서 녹음해보고.

문화예술 이미 레코딩 엔지니어 되기 전부터 녹음

에 관한 실험과 경험이 있었군요. 아무리 그래도 음대, 그것도 버클리 음대에서 늦깎이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황병준 버클리에 들어가면 일단 2년 동안은 완전히 뮤지션으로 살아야 돼요. 버클리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이 되길 요구해요. 화성법, 대위법 같은 음악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악기도 잘 다루어야 하고, 앙상블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 엔지니어가 되기 전에 일단은 음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우선인 것이군요.

황병준 그렇죠. 음악을 잘 알아야 뮤지션들과 작업을 하죠. 악보도 봐야 되고, 뮤지션들과 대화도 잘 해야 하니까요. 입학하고 1년 후부터 뮤직 프로덕션 앤 엔지니어링과에 지원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한 3:1, 4:1 정도 됐어요. 그러니 뮤지션으로 성적이 안 좋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각자 전공 악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 피아노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단단히 잘못 선택한 거죠. (웃음) 피아노 레슨은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으니까 그런 건데, 웬걸요.

세계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애들만 몰려 있으니 저는 그야말로 죽는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공부도 꽤 잘 하고, 수업 준비 잘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악은 절대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피아노 레슨 받는데, 너무 긴장해서 팔이 막 떨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맥주 한잔 마시고 할래?” 이럴 정도로. (웃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 레슨 받아야죠, 재즈 앙상블 해야죠. 재즈라는 게 악보대로 하는 건 맨 처음 딱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즉흥 연주잖아요. 코드 맞춰서 반주 하다가도 선생님이 “너!” 하고 지명하면, 즉흥적으로 막 해야 돼요. 곡도 매주 바뀌니까 저는 반주하기만도 바빠 죽겠는데 즉흥 연주도 하라니... 근데 다들 잘 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반주법 수업도 들어야죠, 또 초견 수업이라고, 악보 보고 바로 치는 것도 해야 되죠. 거의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노이로제 수준이에요.

게다가 전공 레슨 시험에서는 테크니컬한 것, 스케일(음계)을 봐요. 피아노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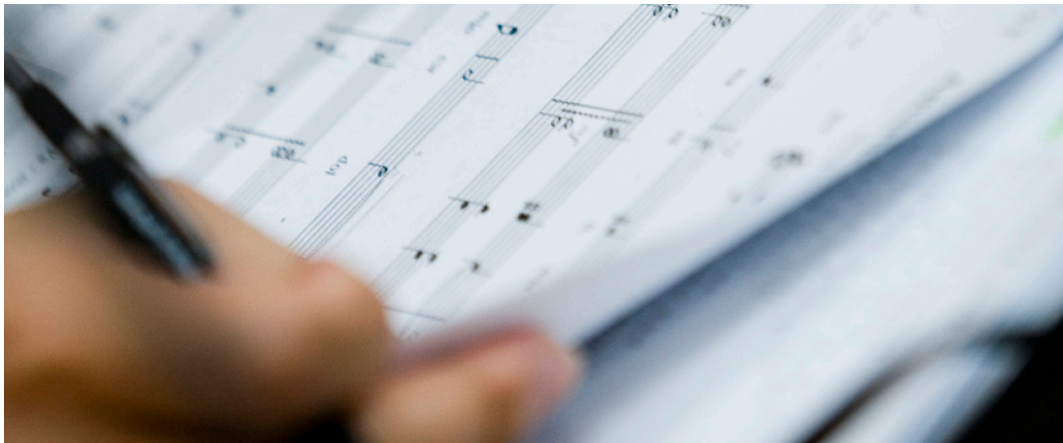
지 빠르게 건반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20시간씩 피아노 친 적도 있어요. 한 학기 시험곡이 딱 두 개거든요. 집에서 한 학기 내내 두 곡만 쳐대니, 식구들은 막 미치죠. (웃음) 하루는 옷 갈아입는데, 팬티 양쪽에 구멍이 열 개씩 난 거예요. 보자마자 와이프를 불렀죠. 같이 데굴데굴 구르면서 웃었어요. 왜 구멍 났는지 뻔히 알잖아요. 스케일이랑 코드 연습 때문에 하도 피아노 쳐서 그런 걸.

문화예술 마냥 웃기기만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황병준 맞아요. 웃으면서도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구나.’ 잊을 수가 없죠. 그 팬티 그냥 버렸는데,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을 걸 그랬어요. (웃음)

문화예술 그러게 말이에요. 그야말로 영광의 상처네요.

황병준 막상 저희 과에 들어가서는 이중고가 뭐였냐 하면, 다른 과 학생들은 낮에만 연습해도 되는데, 우리는 밤낮이 없어요. 낮에는 스튜디오에서



수업이 있고, 오후 여섯시부터는 레코딩 엔지니어링 실습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수업 듣고, 밤새 실습하고. 게다가 저는 학교 들어가자마자 사운드미러 본사에서 인턴으로 일했거든요. 학교 근로 장학생이기도 했고, 아르바이트로 근처 음대에서 졸업 연주회 녹음도 해주고….

문화예술 대체 몸이 몇 개였나요? (웃음)

황병준 몇 년 동안은 1주일에 한 10시간씩 자고 버티고 그랬어요.

문화예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대체 무엇인가요?

황병준 뭐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창피하니까, 그런 거죠 뭐. 박사 공부하려고 유학 갔다가 갑자기 학부로 돌아간 셈인데, 거기서 좌절하고 다시 전기 공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비참해요. (웃음) 또 하나, 오늘 얘기하면서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이걸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프린들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맛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린들 하면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완전히 혼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에 몰입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던 차에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분야를 찾으니 뭐 자연스레 확 미친 거 같아요.

문화예술 그렇게 음악이 좋아서 전공까지 바꾸셨는데, 엔지니어가 아니라 아예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황병준 음… 그 생각은 거의 못 했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앙상블하다 보면 ‘어라? 나도 잘 하면 될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간혹

하기도 했죠. 일단 즐거우니까. 음악은 듣는 것도 좋지만, 조악한 수준이라도 직접 하면 정말로 좋잖아요. 하지만 다들 워~낙 잘 하니까 그게 안 되는 저한테 화가 나죠. 듣는 귀는 또 있거든요. 저는 최고 수준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걸 아는 거죠. 특히 녹음해서 들어보면,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짝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다 구별돼요. 날이 갈수록 더 잘 들리고.

문화예술 오히려 너무 잘 들리니까 엄두를 못 내신 거군요.

황병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스태프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거고.

문화예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진 않나요?

황병준 그렇진 않아요. 성정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자이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예를 들어, 가수가 노래하다가 갑자기 청중 쪽에 마이크 갖다 대면 뽀 소리 날 때 있잖아요. 공연 잘 되고 있을 때는 엔지니어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그런 사건이 생기면 전부 다 도끼를 뜨고 쳐다봐요. 엔지니어란 그렇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욱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문화예술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신 욱먹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고요?

황병준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잘 되고 있을 때는 철저히 감춰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전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음악 좋아한다면서 이리이러한 음반 들어봤냐고 하는데, 바로 제가 녹음한 음반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땐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엔지니어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죠. 아마 엔지니어들은 다들 그럴 거예요.

문화예술 자기를 그림자처럼 감추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황병준 그렇죠. 물론 음반에 크레딧이 나오지만, 누가 그걸 자세히 보겠어요. 화려한 뮤지션들만 보이죠.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재주 있는 사람들 이랑 가까이서 작업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음악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장난기가 좀더 발동하면, 남의 노래 들어주는 직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직업이 세상에 어딴냐고들 하는데, 진짜잖아요? (웃음) 노래 들어주는 게 제 직업이죠.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국악 듣고, 내일은 가요 듣고, 모레는 힙합 듣고, 클래식도 듣고.

문화예술 그러면 레코딩 엔지니어로서 슬프거나 화날 때는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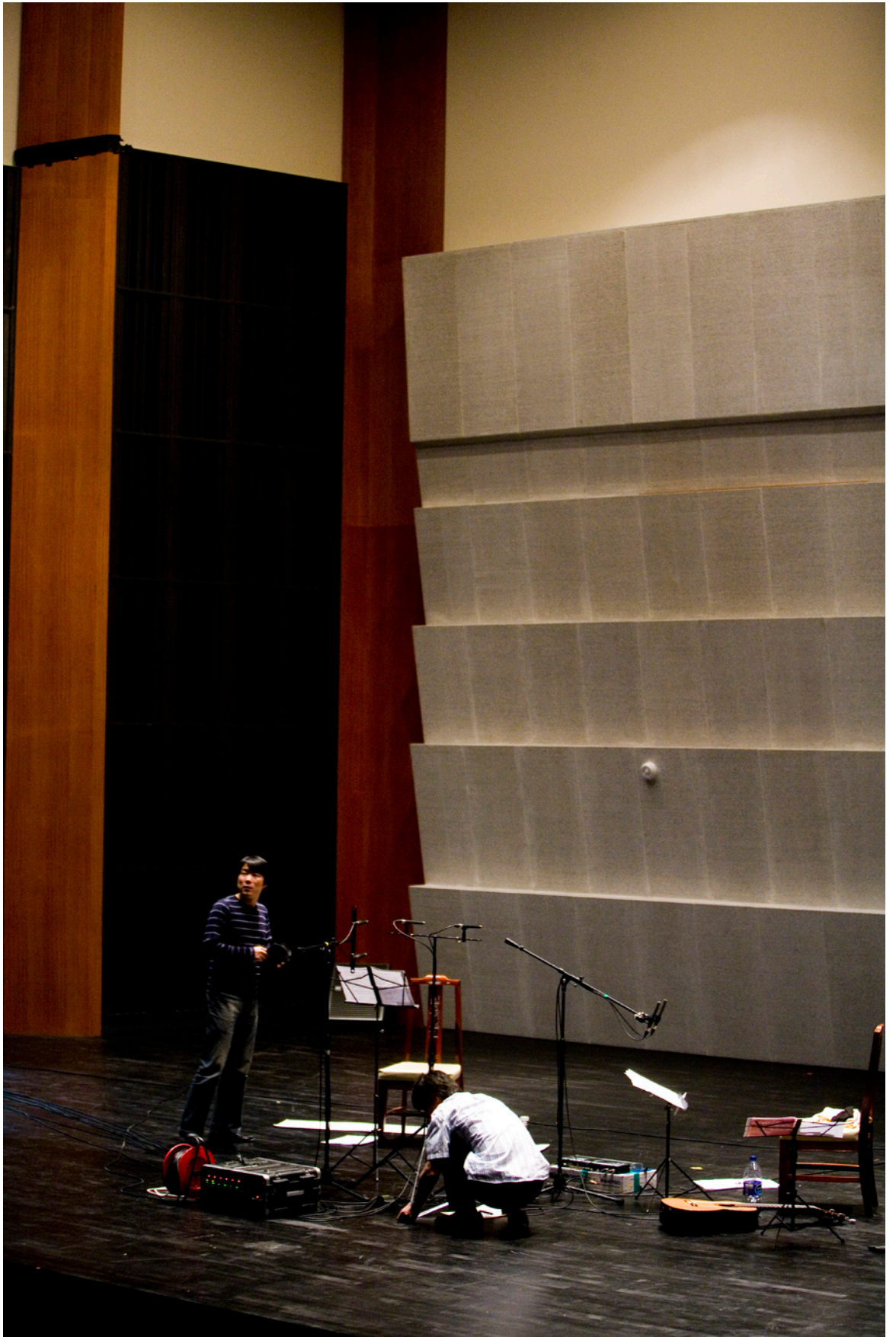
황병준 분명히 그럴 때도 있죠.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제일 화나는 건 이럴 때예요. 간혹 억지로 녹음하는 분들 있어요. 무슨 진흥기금 받아서 억지로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악 하는 경우가 있

거든요. 녹음도 막 성질내면서 하고, 프로듀서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면 됐다면서 대충 끝내요.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자기 시간, 자기 인생도 낭비하고, 내 시간, 내 인생도 낭비하고. 음악이라는 건 플로우(flow)가 있어야 되고, 그 몰입을 위해 어떤 위협이나 노력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감동 안 하는데 남을 어떻게 감동시켜요? 감동은커녕 아예 하기 싫어하는데. 즐겁게 감동 받고 감동 주면서 살자고 이 짓 하는 건데, 정말 그럴 땐 너~무 화나죠. 제발 그렇게 모두를 괴롭게 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 의외의 대답인데요. 심한 대우를 받아서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식의 대답을 예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가장 기쁠 때도 그렇고 가장 화날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과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황병준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기독교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겠죠.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사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이 지나가는 것. 그런데 레코딩 엔지니어는 정말 그런 직업이에요. 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음반이, 감동이 많이 갈수록 나는 훨씬 많이 감동 받아요. 왜냐하면 내 손끝에서 만져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물론 단지 돈 벌기 위해 기계적으로 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괴롭죠. 스트레스 받고, 저도 항상 즐겁진 않죠. 힘들 때도 많아요. 어떤 음반



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문화예술 음반마다 레코딩 엔지니어의 개입 수준이 다를 텐데요. 레코딩 엔지니어의 창조적인 역량과 아이디어가 많이 개입되는 경우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 반대의 경우도요.

황병준 가령 솔로 피아노 재즈다, 연주가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마이크 셋업 잘 해주고, 의도한 대로 소리가 나오게 해주면 돼요. 또 프로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엔 제가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아요. 프로듀서가 제 의견을 구할 때 조금 얘기하는 정도죠.

그런가 하면, 뮤지션의 음악 색깔을 결정하는 수준, 전체적인 것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편곡을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더 세게 불러라, 이 부분은 좀더 약하게 불러라, 이런 조언도 하죠.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자칫 월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알아도 참고 있어야 할 때가 많아요.

문화예술 뮤지션과 음악적 견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황병준 제 성격이 좀 곧이곧대로여서 클라이언트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죠. 특히 사운드미러 시작할 때만 해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러한 소리가 분명 훨씬 낫다고 보는데, 클라이언트는 정 반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싸우죠.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많이 잃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중 제가 부리는 고집이 너무 맘에 든다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은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죠. 사실 소리의 문제는 어떤 절대 진리가 아니라, 취향의 문

제거든요. 나와 다른 취향도 용납해야 한다는, 제 스스로의 설득이 있었어요. 깨달은 거죠.

문화예술 그래도 정말 이견 아니다 싶은 것도 있지 않나요?

황병준 그렇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 클래식 곡인데 완전히 화음이 틀린 거예요. 프로듀서도 발견하지 못 한 걸 제가 지적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완전 구원자가 되는 거죠. 틀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이제는 관록이 많이 붙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클라이언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 번 더 얘기해봐요. 이견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저건 저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도 그러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문화예술 마지막 선택권은 무조건 뮤지션에게 맡기는 것이군요.

황병준 그럼요. 제 음반이 아니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서비스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한참 작업했는데, 다음날 와서 그냥 원래대로 갑시다, 이럴 때 있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결과물이 아쉬워서 속이 상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간혹 한참 지나고 ‘아, 그냥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이러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웃음) 물론 반대 경우도 있고요.

문화예술 레코딩 엔지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자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 이론은 물론, 악기도 웬만한 건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컴퓨터나 전자공학에 대한 이해도 필수일 테

고요. 또 예민한 뮤지션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황병준 (웃음) 벌써 다 얘기해주셨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 같아요. 뮤지션이 안심하고 자기 소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다행히도 미국 사운드미러 본사에서 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 뉴튼 선생님께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정말로 필요한 건,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음악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끈기가 있어야 하죠. 버티는 힘이 없으면 절대 못 해요. 이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루종일 엄청 크게 들으면서, 계속 집중하고, 분석하고, 작업하고 싶은 열의, 그 열정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문화예술 체력도 무시 못하겠네요. 밤샘 작업도 많은가요?

황병준 가끔 있어요. 주로 영화음악할 때,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밤샘 일이 많죠. 근데 저는 밤샘 작업 되게 안 좋아해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문화예술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야 하는 작업이라서 더더욱 그렇겠습시다. 내 귀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구나, 나한테 음악적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건 언제쯤 자각하셨나요?

황병준 재능을 발견한 적은, 그런 생각은 못 했고요. 오디오를 워낙 좋아해서 ‘바꿈질’하고, 좋다는 오디오 들어보러 다니면서, 아 내가 좀 예민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들린다는데, 저는 소리가 좋고 나쁘고가 확확 들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리는 훈련 안 된 사람들도

좋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지금 잠깐 좀 들려드릴까요? 이번에 그래미상 받은 앨범 들려드릴게요.

(다함께 음악 감상. 그레차니노프의 아카펠라 합창 음악 <수난주간>, 산도스 레코드·지휘 찰스 브루피·합창 캔자스시티 코럴, 피닉스 바흐 콰이어)

문화예술 정말 대성당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합창단 목소리가 정말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황병준 녹음할 때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자랑 엔지니어 셋이 동시에 서로 탁 쳐다봤어요. ‘어라, 이거 뭐가 될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 거죠. 합창단 중에 노래 다 부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드물죠.

문화예술 계속 작업하시다보면 녹음 단계에서 이미 음반의 질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네요. 이 음반이 그래미상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조금은 하셨나요?

황병준 이 앨범 같은 경우는 발매되지 못할 뻔하다가 3년 만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미상은 생각도 못 했어요. 원래도 작업할 때 상을 염두에 두진 않고요. 항상 1차적으로는 내 만족을 위해서 작업하는 거죠. 녹음할 때 원하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문화예술 그래미에 레코딩 엔지니어 부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국에서의 레코딩 엔지니어 위상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떤가요?

황병준 많이 부족하죠. 적절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예술의 전당에서조차도, 제가 케이블

설치하고 있으면, 아버지 거기 마이크 좀 치워주세요, 이래요. 녹음할 때 마이크를 아무 데나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막 치워달라고 하는 거죠. (웃음) 그렇게 일꾼 취급 받는 경우 많이 있죠. 그치만 뒤편이 어찌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한국에 정말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가 부족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자존심을 낮춘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곤조’ 부려선 안 되지만, 고집 부려야 할 때는 또 부려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문화예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병준 뮤지션이 엔지니어를 대등한 관계, 파트너로 안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또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뮤지션이 엔지니어를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엔지니어가 노력해야죠. 특히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클래식 음반 녹음하러 온 분이 “옛날에 나온 ○○ 음반의 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아, 그거요? △△ 오케스트라 같이 한 음반이죠?” 이렇게 바로 맞받으면 깜짝 놀라죠. 이런 음악적 대화가 신뢰를 주는 지름길 이죠.

문화예술 2000년 귀국해서 사운드미러 코리아를 세우셨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황병준 시간이 좀 걸렸죠. 제가 한국에서 쪽 음악한 사람도 아니고, 이쪽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처음 1년 정도는 힘들었어요. 일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음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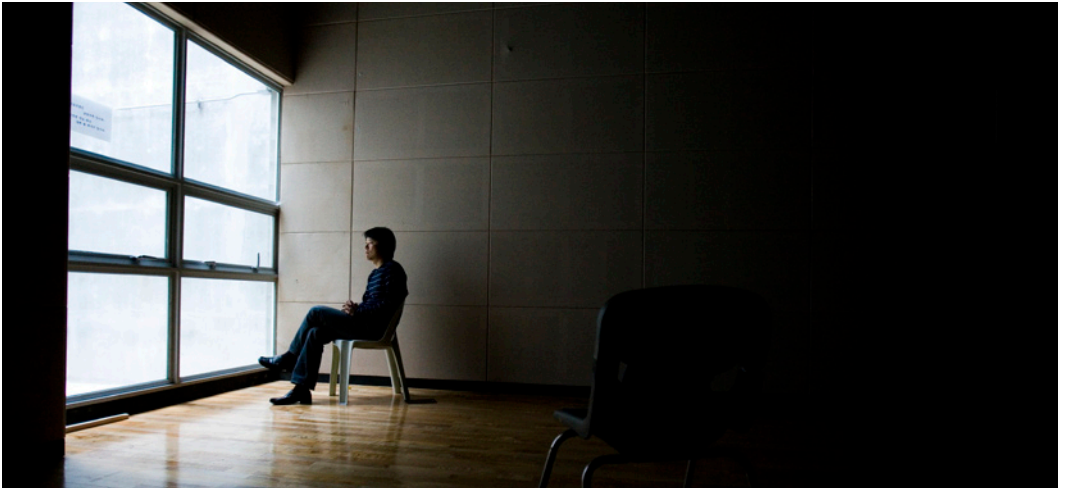
았으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죠. 겁도 없이 시작했어요. (웃음) 10년 전 음반 시장 규모가 6~7천 억 정도였다면, 지금은 6백 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10로 줄어든 거죠. 말이 안 돼요. 그사이 큰 레코딩 스튜디오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저흰 용하게 잘 살아남은 거죠.

문화예술 지금까지 작업해온 음반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신 적 있나요?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음반이나 뮤지션이 있다면요.

황병준 마스터링만 한 것까지 꼽으면, 1년에 200~300장 나오는 것 같아요. 레코딩부터 마스터링까지 전부 다 한 건, 1년에 20~30장 정도 될 거고요.

영화음악 중에는 <마리 이야기> 생각이 많이 나요.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필드 레코딩으로 작업한 음반일 거예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반대도 많았어요. 리스크가 크다,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실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병우 음악 감독님과 같이 했는데요. 당시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병우 형이 저를 믿고, 적극 밀어줬죠. 나중에 영화사에서도 프라하 같은 느낌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흥행은 안 됐지만, 영화도 정말 좋았어요. 음악상도 많이 받았죠. <마리 이야기> 이후로 병우 형과 계속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죠.

클래식 쪽으로는 김대진 선생님과 폴란드에 직접 가서 녹음한 음반이 인상 깊어요. 낯선 데라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무거운 장비도 다 들고 가야 되고, 통관 문제도 있어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잘 진행됐고 음반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김대진 선생님



도 만족해 하셨고요.

문화예술 현재 집중하고 있는 선생님만의 프로젝트가 있다면요.

황병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국악을 편곡해서 오케스트라로 녹음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에요. 지금까지는 국악을 주로 스튜디오에서, 그것도 각각 완전히 분리된 방에서 녹음해왔어요. 국악이란 건 하나의 큰 공간에서 연주되는 것인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녹음 후에 굉장히 많이 만져야 해요. 좋은 공간에서 녹음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문화예술 그러니까 국악이야말로 필드 레코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황병준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는 당장 7월에 녹음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소프라노 신영옥 씨의 녹음이 있고요. 또 임선혜 씨라고 아세요? 조수미와 신영옥의 뒤를 잇는 소프라노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임선혜 씨 녹음도 준비 중이에요. 그래미

상 받은 후에 세미나며 행사며 여기저기 많이 불러다녔는데, 이제 본연의 작업에 충실해야겠죠.

2008년 5월 23일 사운드미러 코리아 스튜디오,
5월 3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극장에서 만나다
정리 이해정 편집부 | 사진 박정훈, 전석병